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렘 6:16).

# 옛신앙

Old-time Faith

www.oldfaith.net

‘옛신앙’이란 옛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증거했던 신앙, 오직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에만 근거한 신앙, 오늘날 배교와 타협의 풍조에 물들지 않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04072 서울 마포구 독막로 26 (합정동) 합정동교회 김효성 목사, ☎ 02-334-8291, E-mail: oldfaith@hjd.net

## 주일오전설교

### 아브라함의 예

[롬 4:1-3]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써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매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진리는 구약성경도 증거한 바이었다.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을 그 증거로 들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셔서 “하늘을 우러러 못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4-5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샅은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이라는 말은 행위를 가리킨다. 일하는 자가 받은 샅은 은혜가 아니고 당연히 받아야 하는 보수이다. 의롭다 하심이 사람의 의로운 행위에 근거하였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닐 것이지만, 의로운 행위가 없었음지라도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의로 간주되었으므로,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와 같이, 믿음과 행위는 서로 구별되고 대조된다. 믿음은 행위와 다른 무엇이다. 그것은 말 그대로 그저 믿는 것이다. 이것은 성도에게 의로운 행위가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다. 아브라함은 경건하고 의로운 삶을 살았다. 참 믿음은 경건하고 정직한 행위로 나타난다. 그러나 사람의 행위는 불완전하므로 사람이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사람은 행위로가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죄인 구원의 방법이다.

[6-8절] 일한 것이 없이(코리스 에르곤[행위들과 별개로]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할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은 행위들과 별개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해 증거한 다윗의 시를 인용했다. 그가 인용한 말씀은 시편 32:1-2이다. 그것은 사람이 죄가 없어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고 죄가 있지만 죄사함을 받기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을 보인다. 이와 같이, 의롭다 하심은 사람의 의로운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인 것이다.

[9-10절]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혹 무할례자에게도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뇨?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할례 받기 전인가 후인가? 그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건은 창세기 15장에 나오고(15:16), 창세기 16장은 그가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은 때가 86세라고 증거하며, 창세기 17장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때가 99세라고 증거한다(17:24).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때는 그가 할례를 받기 13년 이전이었다고 보인다.

[11-13절]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저희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 뿐 아니라(할례 받을 뿐 아니라 또한(원문)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좇는 자들에게도)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後嗣)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의 할례는 그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받은 의를 입증하는 표이었다. 아브라함이 할례자의 조상이 라고 할 때, 그 할례지는 단지 육신의 할례를 받은 자들을 가리키지 않고, 육신의 할례를 받았을 뿐 아니라 또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유대인들을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버지가 되고 그 후손이 온 세계에 충만하리라는 약속은 믿음

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적용되고 그들을 다 포함하는 뜻이 있다.

[14-16절]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後嗣)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졌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니나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카타 카린) 은혜에 의거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나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율법은 죄인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그로 하여금 진노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한다. 그러므로 율법만으리라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었다. 여기서 율법과 은혜, 행위와 믿음은 다시 대조된다. 율법을 행하는 것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물론, 믿는 자는 율법에 순종하며 정직하게 말하고 행동할 것이다. 그러나 믿음 그 자체는 율법 순종의 행위와는 구별된다.

[17-18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이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 믿음의 성격을 증거한다.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자이다. 그는 무(無)로부터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믿음은 바로 그 하나님 곧 창조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믿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라는 말은 '소망을 거슬러 소망 중에'라는 역설적 표현이다. 아브라함은 육신적으로 소망이 없었으나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붙들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자신에 대한 부정과 하나님께 대한 긍정을 뜻한다. 자기에게 무엇이 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을 섬기다가 자기에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 드러날 때에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그것은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고 단지 자기 자신을 신뢰한 것일 뿐이다.

[19-22절]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의 [이미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생각하지 않고(전통사본)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아 백세가 되어 자기 몸과 사라의 태의 죽은 것 같음을 알았을 때에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그는 결코 자신의 상태만 바라보지 않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믿었다. 그것이 참된 믿음이다. 믿음은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의지하는 것이다. 믿음은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이며, 자신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며 의탁하는 것이다.

[23-25절]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때문에) 살아나셨느니라.

우리의 구원도 같은 원리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셨고 우리의 의롭다 하심 때문에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음과 삼일 만에 부활하심을 믿는 자는 참 하나님을 믿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내용을 믿는 것이다. 이 믿음은 사람의 무엇을 의지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단지 전능하신 하나님,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아브라함처럼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것이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아브라함은 자신의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다윗도 행위로는 부족과 실수가 없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용서하심으로 용납함을 받았다. 이와 같이, 죄인들은 자신의 의롭고 선한 행위들로가 아니고 오직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둘째로, 아브라함은 무할레시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가 할례의 규례와 율법을 받은 것은 그가 받은 의를 확증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진리는 할례자에게나 무할례자에게나 똑같이 적용된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할 뿐이다.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셋째로,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바라고 믿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은 것이다.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같이 부르시는 자이다. 믿음은 우리 자신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긍정하는 것이며,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것이다. 이것이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믿음이다. 이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다. 신약 성도들이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삼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믿을 때, 그들은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것과 같다.

**주일오후설교 |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함**

[창 48:1-4] 이 일 후에 흑이 요셉에게 고하기를 네 부친이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흑이 야곱에게 고하되 네 아들 요셉이 네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허락하여 복을 주셨고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여 네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야곱은 이스라엘이라 불리었다. 그것은 그가 압박 강가에서 하나님께 받은 복된 새 이름이었다. 야곱은 병에 걸려 죽을 때가 가까웠을 때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복에 관해 말했다. 하나님에 관한 말씀은 경건한 성도가 자녀에게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말씀이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에게 가장 큰복이시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루스에서 야곱에게 나타나 복을 주시며 두 가지를 말씀하셨다. 첫째는 “내가 너로 생육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여 네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리라”는 것이며, 둘째는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는 것이었다. 그것은 그의 조부 아브라함과 그의 부친 이삭에게 주셨던 복과 동일하였다(창 12:2, 7; 17:8; 22:17; 26:3-4; 28:13). 물론, 하나님의 복은 이 두 가지에 더하여 “네 지손으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는 내용, 즉 메시아 약속에 대한 내용도 있었다(창 12:3; 22:18; 28:14).

[5-6절]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의 네 소생이 내 것이 될 것이며 그 형들=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명의 하에서 이름 아래에서 함께하리라.

성경은 요셉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외에 다른 아들들을 낳았는지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만일 그가 다른 아들들을 낳았다면, 그의 아들들 중 므낫세와 에브라임, 둘만 야곱의 아들로 간주되고 나머

지는 요셉의 아들로 간주되며, 그들은 그들의 형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지파에 나뉘어 소속되었을 것이다.

[7절] 내게 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노중(路中)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임까지 길이 오히려 격한 약간 떨어진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라임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라임 곧 베들레헴이라.)

에브라임은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할 당시 베들레헴이라 불리었다.

[8-11절]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가로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 아버지에게 고하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가로되 그들을 이끌어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인하여 어두워져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비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 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고는 뜻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네 소생까지 보이셨도다.

요셉은 자기 아들들을 ‘하나님께서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라고 표현하였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시편 127:3, “자식은 여호와와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보리라 생각하지도 못했던 요셉뿐 아니라, 그의 아들들까지 보게 하심을 감사하면서 그들에게 축복하기를 원하였다.

[12-14절] 요셉이 아비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우수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좌수를 향하게 하고 좌수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우수를 향하게 하고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우수를 펴서 차자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좌수를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어긋맞겨 었었더라.

이스라엘은 오른손을 펴서 둘째인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첫째인 므낫세의 머리에 얹었다. 므낫세가 장자이었지만, 팔을 어긋맞겨 었은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작정된 뜻을 나타냈다. 둘째 아들이 더 번창할 것이다. 야곱에게는 선지자적 감동이 있었다.

[15-16절]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가로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섬기던 그 앞에서 걸었던 하나님,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맥이신, 인도하신, 목자 되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옵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옵며 이들로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노이다.

야곱은 젊어서부터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였다. 그의 축복의 말에는 하나님에 대한 그의 신앙이 드러나 있다. 첫째로, 그는 하나님을 그의 조부와 부친이 그

앞에서 걸었던 하나님이라고 불렀다. 경건함이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다. 둘째로, 그는 하나님을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불렀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목자가 되어서 그를 먹이셨고 인도하셨다. 셋째로, 그는 하나님을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라고 불렀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셨다. 야곱은 그 하나님께서 요셉과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세상에서 번성케 하시기를 축복하였다.

[17-20절] 요셉이 그 아버가 우수를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음소서. 이는 장차나 우수를 그 머리에 얹으소서. 아버가 허락지 아니하여 가로되 나도 안다. 내 아들이,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 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족속이 너로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너로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리라 하여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야곱에게는 예언적 영감이 있었다. 그는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할 때 둘째 아들 에브라임을 첫째 아들 므낫세보다 앞세웠다.

[21-22절]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네게 네 형제보다 일부분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을 확신했고 또 그들이 가나안 땅 거민들을 정복하고 그 땅을 분배할 때 요셉에게 두 사람 몫을 줄 것을 확신했다.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야곱은 병들어 죽을 때가 가까웠을 때 요셉과 그의 두 아들들의 방문을 받고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하나님에 관해 말했다. 우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말할 기력이 있고 기회가 있을 때 해야 할 말은, 육신의 건강이나 부자 되는 것이나 출세하는 것에 대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과 그의 구원에 관한 말씀이어야 한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남겨줄 말들 중에 이보다 더 중요한 말은 없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관해 말해야 한다.

둘째로, 야곱은 요셉과 그의 두 아들들에게 축복하였다. 하나님께서는 만복의 근원이시다. 하나님께서만 인생에게 복을 주실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의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얻었고 또 평안과 건강의 복과 물질적 여유

도 얻기를 원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복 받기를 사모할 뿐 아니라,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야 한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의 땅으로 약속하셨고 야곱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하였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과 함께 계시서 장차 그들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을 확신했다. 오늘날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은 천국이다. 하나님께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를 위해 예비하셨고 우리는 장차 그곳에 들어가 영생의 복을 누릴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성경에 밝히 증거하신 그 천국을 확신하고 항상 소망해야 한다.

## 수요일 설교 | 바벨론 왕의 멸망

[사 14:1-23]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자기 고토(故土)에 두시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에게 가입되어 그들과 연합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와 그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奴婢)를 삼겼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를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를 주관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너의 수고 하는 고역(苦役)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확대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폐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패관자의 활을 꺾으셨도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바벨론 왕의 멸망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께서는 일어나 바벨론 왕들과 그 자손들을 바벨론에서 끊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홀로 작정하셨고 홀로 섭리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의 생사화복(生死禍福)과 나라의 흥망성쇠(興亡盛衰)와 온 세계의 역사를 홀로 주관하시고 섭리하신다.

둘째로, 바벨론 왕은 교만과 강포 때문에 멸망할 것이다. 그는 교만하여 자신을 하나님과 견주려 했고 또 다른 사람들을 압제하였다. 그러나 그의 영광과 희락은 다 없어질 것이다. 그는 지옥 맨 밑에 떨어질 것이다. 우리는 세상을 사랑치 말고 교만치 말고 강포치 말아야 한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택하여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며 그들에게 안식을 주실 것이다. 바벨론 왕의 멸망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이 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의 구원을 얻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항상 거하며 감사하고 바르게만 살아야 한다.